都市民의 衣生活意識에 關한 硏究

——主婦와 女敎師를 中心으로——

Attitudes of Urban Housewives and Teachers

Concerning Clothing and Home Dressmaking

目 次

Ⅰ. 序 論
Ⅱ. 對象과 方法
A. 對 象
B. 調査時期와 方法
Ⅲ. 調査分析
A. 洋裁實行에 關한 實態
B. 洋裁에 關한 意識
C. 流行에 對한 關心度
D. 旣成服에 關한 分析
Ⅳ. 結 論

仁荷大學校 理科大學
Inha University

助敎授 李 春 桂
Assistant. Prof. Lee, Choon gye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plore the following two key questions on woman's attitude toward the clothing: (1) Their willingness to make their own dress at home: (2) purchasing tendencies of ready-made wear.

The data were drawn through questionaires collected form 495 women in random sampling-335 housewives and 160 high school woman techers living in Seoul.

The findings are;

1. As a whol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eachers and the housewives in their attitudes on clothing and home dressmaking.
2. Teachers and housewives alike have shown the tendency to avoid to take the trouble to make their own dresses themselves due, in large measure, to the technical difficulties of dressmarking.
3. On account of general shortcomings of ready-made clothing such as poor quality cloth, casual workmanship, inadequate assortment, unfitness of size to

figure and outdated fashion, they purchase ready-made only for casual uses and really resort to tailor made for formal dresses.

Since this paper is preliminary report, the accounts are to intend to be suggestive rather than conclusive, and more detailed and profound must, of course, await further empirical research.

Ⅰ. 序　論

衣生活에 關한 敎育은 實科敎育의 一環으로써 國民學校로부터 中高等學校에 이르기까지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고 大學에 있어서도 家政科, 衣類織物學科, 또는 家政大學等의 過程에 있어서는 必須分野에 屬한다. 이의 內容도 廣範하여 被服의 材料·構成·造形·製品等의 問題와 被服의 生産·流通·消費等의 經濟問題와 被服의 管理·應用·機能 그리고 服裝의 效果에 이르기까지 理論과 實技를 通한 全般的인 指導가 行해지고 있다.

近來에 이르러 이들 內容은 理論面이 置重되고 强化되는 反面 實技面은 소홀해지고 弱化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는 過然 바람직한 것인가의 與否는 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안다. 指導內容 및 方法이 日常生活에 민감하게 反映됨을 생각할 때 이와같은 傾向은 現在 또는 將來의 衣生活 實態나 意識에 많은 影響을 미칠 것이므로 이들 問題를 檢討한다는 일은 大端히 重要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點을 念頭에 두면서 먼저 都市의 主婦와 女敎師의 家庭洋裁에 關한 實行實態와 意識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 流行에 對한 關心度, 旣成服에 關한 意識 및 이의 購入傾向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衣生活에 관한 어떤 具體的인 問題를 깊이 探索할 수 있는 豫備知識을 얻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調査硏究를 實施하기 爲해서는 對象者들의 職業有無, 年齡, 敎育程度, 階層 卽 生活程度의 差異等에 따른 考察이 바람직하다[1]. 그리고 年齡, 敎育程度, 生活程度의 差異에 따른 衣生活意識에 關하여 調査를 하려면 各各 그것에 適合한 標本(Sample)을 選擇해야 할 것이다[2]. 여기서는 우선 職業의 有無, 그 가운데서도 主婦와 女敎師에 限定하여 調査比較키로 하였다.

Ⅱ. 對象과 方法

A. 對　象

서울市의 女子中學校 學母인 主婦와 中高等學校 女敎師를 對象으로 삼았다. 主婦의 選定은 中學의 學群을 감안하여 서울市 中央部에서 S女中과 南部에서 H女中, 西部에서 K女中, 北部에서 S女中等 4個校의 1學年生의 어머니 335名을 택하였다.

敎師는 上記 4個校 以外에 中央部에서 H女中을 첨가시킨 5個校의 女敎師 160명을 調査對象으로 삼았다.

B. 調査時期와 方法

調査는 1973年 4月에 23問項의 設問紙法에 依해 實施하였다. 設問書는 15個의 多項目中選擇問項, 2個의 自由應答項目, 6個의 家庭背景에 關한 項目으로 構成하였다.
設問項目表는 여기서는 紙面關係로 생략키로 한다.

調査對象中 主婦의 年齡은 30代에서 40代에 集中되어 있었고 敎師는 20代에서 30代에 集中되어 있었으며 敎育程度는 主婦가 국·중·고졸에 고루 分布되어 있음에 比해 敎師는 모두 大學卒業者였다. (表 1. 2 참조) 한편 生活程度를 主觀的으로 評價시켰더니 거의 전부 中졸이라고 해답했음을 부언해 둔다.

〈表 1〉 對象者의 年齡 (左上의 數字는 實數임)

主婦敎師別 \ 年齡別	20 代 (%)	30 代 (%)	40 代 (%)	50代以上(%)	合 計 (%)
主 婦	2 0.9	118 35.2	185 55.2	30 9.0	335 100
敎 師	89 55.6	57 35.6	11 6.9	3 1.9	160 100

〈表 2〉 對象者의 敎育程度 (左上의 數字는 實數임)

主婦敎師別 \ 敎育程度	未就學(%)	國 卒(%)	中 卒(%)	高 卒(%)	專門·大學卒(%)	合 計(%)
主 婦	4 1.2	67 2.0	109 32.5	127 37.9	28 8.4	335 100
敎 師	—	—	—	—	160 100	160 100

Ⅲ. 調 査 分 析

A. 家庭洋裁實行에 對한 實態

먼저 家庭洋裁의 實行實態를 알아보기 위해 家庭洋裁의 實行程度와 洋裁의 嗜好性 그리고 中高等學校 以外에서 洋裁指導를 받은 일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調査하였으며 趣味와도 關連시켜 보았다.

먼저 洋裁實行程度에 關해 살펴보면 表 3—1에서와 같이 洋裁를 자주 또는 가끔한다는 主婦가 約 40%임에 比해 敎師는 19%에 不過하다. 前에는 했으나 지금은 거의하지 않는다는 答欄에는 主婦와 敎師가 비슷한 應答比率을 보이고 있다. 거의 한 일이 없는 사람은 敎師側이 主婦의 二倍가 넘는 比率을 보이고 있다.

〈表 3—1〉 洋裁의 實行度 (主婦·敎師의 比率差에서 敎師가 많은 것을 一로 表示함)

主婦·敎師別 \ 問項別	자주한다	가끔한다	전에는 했으나 지금은 거의 하지 않는다	거의 한 일이 없다	合 計
主 婦	4.8(%)	35.5	38.2	21.5	100
敎 師	1.2	18.1	33.8	46.9	100
主婦와 敎師의 比率差	3.6	17.4	4.6	−25.4	—

〈表 3—2〉 洋裁의 嗜好性

主婦·敎師別 \ 問項別	좋아한다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싫 다	合 計
主 婦	35.2 (%)	56.7	8.1	100
敎 師	37.5	47.5	15.0	100
主婦와 敎師의 比率差	−2.3	9.2	−7.1	—

〈表 3—3〉 中高 以外에서 洋裁를 배운 곳

主婦·敎師別 \ 問項別	양재학교	대 학 교	가 정	개인교수	없 다	合 計
主 婦	6.0(%)	1.2	51.3	1.2	40.3	100
敎 師	3.8	18.8	17.5	1.9	58.0	100
主婦와 敎師의 比率性	2.2	−17.6	33.8	−0.7	−17.7	—

主婦와 敎師의 比率差를 보면 가장 甚한 것이 "가끔한다"로 主婦側이 敎師側보다 17.4%가 많음에 比해 "거의 한 일이 없다"에는 敎師側이 主婦側보다 25.4%나 더 많다 亦是 外務에 關與하는 職業人인만큼 上記差를 보이는 것은 當然한 일로 생각되며 家庭洋裁의 實行性은 "가끔한다" "자주한다"를 合한 約 40%의 主婦들에게는 可能性이 있다고 判斷된다.

다음 洋裁에 대한 嗜好性에 關해서는 좋아한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싫다의 三段階로 答하게 하였더니 表 3—2에서와 같이 洋裁하는 것이 "싫다"에 答한 사람은 主婦 8.1%. 敎師 15%로 적은 比率을 보였으나 "좋아한다"에 答한 사람은 35.2%. 37.5%로 훨씬 많은 比率을 보여주고 있다.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에 答한 比率은 主婦 56.7%. 敎師 47.5%였다.

主婦와 敎師의 比率差를 보면 "좋아한다"와 "싫다"에 各各 敎師側이 2.3%. 7.0% 더 많고 좋지도 싫지도 않다에는 主婦側이 9% 더 많다.

위의 結果를 表 3—1과 比喩해 볼 때 敎師는 家庭洋裁를 實行하는 일이 極히 적었지만 그 理由가 싫어서만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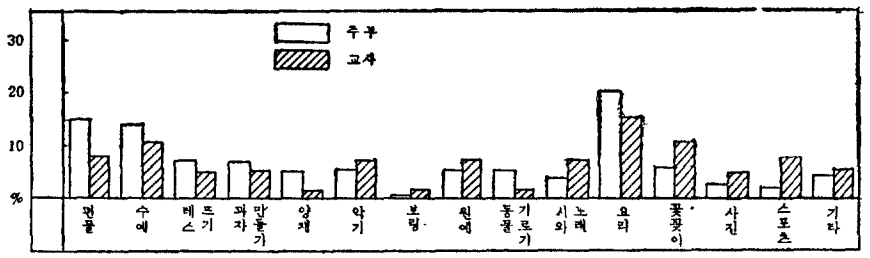
다음 中高等學校 以外에서 洋裁를 배운 일이 있는지의 여부를 調査했더니, 主婦의 경우 家庭에서 배웠다는 사람이 51%이고. 그외의 洋裁學校나 個人敎授를 받은 것까지를 합하면 60% 정도가 中高等學校 以外에서 洋裁를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敎師는 42%가 中高等學校 以外에서 洋裁를 배웠음을 보여 주었다. 約 半數 乃至 半數以上이 學校以外에서 洋裁를

배웠다는 것은 單純히 어떤 趣味나 嗜好에서뿐만이 아니라 生活의 必要에서 배우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傾向은 家庭洋裁의 實行可能性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을 것이다. (表 3—3 참조)

主婦와 敎師의 比率差에서 注目되고 것은 洋裁를 家庭에서 배웠다는 主婦가 敎師보다 33.8%나 더 많았고 洋裁學校에서 배운 主婦가 敎師보다 2.2% 많았다. 亦是 洋裁實行에 있어 主婦側이 그 可能性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趣味에 關하여 살펴보았다. 卽 主婦와 敎師의 趣味 가운데 洋裁가 차지하는 比重이 어느 程度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15種의 趣味項目가운데서 2個를 選擇하게 하였다. 그림 1에 表示된 바와 같이 甚한 集中現象은 보이지 않았고 고루 分布된 實態를 보여주고 있었다. 敎師, 主婦 모두 料理가 으뜸으로 15%와 20%의 比率을 보이고 있다. 主婦는 「編物」, "手藝"가 다음 位置를 차지함에 比해 敎師는 "레이스 뜨기"와 "꽃꽂아"가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洋裁는 主婦가 約5.4%로 9位임에 比해 敎師는 約1.6%로 最下位를 차지하고 있다. 主婦의 경우 洋裁를 包含해서 約 40%가 손으로 作品을 趣味로 하고 있었다. 한편 敎師들은 손쉽거나 簡單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요리" "수예" "꽃꽂이" "스포츠" "편물" 等에 自己趣味를 많이 나타내고 있었다. 以上의 結果를 主婦와 敎師의 差異와 각 種目別 差異를 알기 쉽게 그림 1로 表示해 보았다.

〈그림 1〉 趣味의 傾向



·끝으로 洋裁實行에 큰 영향을 주는 재봉틀의 有無 및 이 틀의 使用頻度와 用途를 알아보았다. 主婦·敎師 모두 80~83%가 재봉틀을 所持하고 있었다. 使用頻度는 1個月(1973年 3月)을 基準으로 하여 調査하였더니 主婦는 月3~5回 使用하는 경우가 42% 정도이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9%임에 比해, 敎師는 月1~2回 使用이 42%에, 한번도 사용하지·않은 경우가 47%나 된다. 敎師의 경우 休假中인 1月이나 8月에는 學期初인 3月에 比해 使用回數는 增加될 것으로 豫想된다. 그래도 1~5回를 使用한 比率이 敎師 51%, 主婦 80%인 것은 家庭用 裁縫틀의 活用度가 아주 낮지는 않다는 事實을 보여주고 있다. (表 4 참조)

재봉틀의 用途에 關해서는 自由記入法을 使用하였다. 그 結果 多樣한 用途가 表示되었으나 다음의 세가지로 整理할 수 있었다. 卽 "고침이나 깁기" "가정용품이나 일용품 박기" "옷 만들기"로 集約되었다. 옷을 만드는데 使用된 比率은 敎師가 11.43%이고 主婦가 19.

79%, 고침이나 깁기에는 敎師가 60.95%, 主婦가 42.40%, 가정용품이나 일용품 박기에는 主婦37.81%, 敎師 27.62%였다. 옷을 만든 내용은 아이들의 옷, 속치마, 한복이 主였고 其他 부라우스, 스커트 等을 만드는데도 使用되었다. 보다 많은 數가 옷을 만드는데 틀을 使用하도록 하려면學校에서의 被服構成의 實技敎育이 어떻게 指導되어야 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課題로써 硏究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表 4〉 1개월간의 재봉틀 사용회수

회수별 / 직업별	0	1~2	3~5	6~10	11회 이상
主 婦	9.0	27.8	42.2	12.6	8.4
敎 師	47.3	41.9	9.3	0	1.5

B. 洋裁에 關한 意識

意識調査에서는 洋裁實行에 影響을 주는 肯定的인 要因이라고 생각되는 21個의 問項과 否定的 要因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13個의 問項을 만들어 이중 2個를 選擇하게 하였다.

먼저 否定的 要因에 關한 調査를 살펴보기로 한다. 主婦, 敎師 모두 고루 分布된 狀態를 보인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난 問項은 20%內外로 主婦는 "좋아하지만 어렵다"였고 敎師는 "시간이 걸린다"였다. (表 5 참조)

〈表 5〉 洋裁에 關한 否定的 意識 (比率差에서 敎師가 많은 것을 -로 表示함)

구분 / 직업	主 婦	敎 師	主婦와 敎師의 比率差
① 좋아하지만 어렵다.	19.6%	15.0%	4.6
② 귀찮고 싫다.	3.7	5.6	-1.9
③ 손 일은 싫다.	2.1	2.8	-0.7
④ 시간이 걸린다.	14.5	20.3	-5.8
⑤ 기술이 어렵다.	10.3	11.6	-1.3
⑥ 본(원형) 뜨기가 어렵다.	11.6	5.6	15.9
⑦ 시대에 뒤떨어진다.	2.7	5.0	-2.3
⑧ 샤바느질 같은 인상을 주어 싫다.	0.6	0	0.6
⑨ 가족이 분주스러운 것을 싫어한다.	5.1	1.3	3.8
⑩ 힘들여 만들어도 입을 수 없다.	3.4	10.6	-7.2
⑪ 기성복으로 충분하다.	10.9	8.4	2.5
⑫ 디자인대로 되지 않는다.	9.3	7.5	1.8
⑬ 어질러 놓은 뒷처리가 귀찮다.	3.0	1.3	1.7
⑭ 기 타	3.2	5.0	-2.8
合 計	100%	100%	—

主婦와 敎師의 比率差는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형뜨기가 어렵다"에 敎師보다 主婦가 15.9% 더 많이 答하였고 "좋아하지만 어렵다"에 亦是 主婦側이 4.6% 더 많은 應答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도 어렵다는 要因만 除去된다면 敎師보다는 主婦가 洋裁를 肯定的으

로 受容할 可能性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위의 14個項을 同一性이 認定되는 것끼리를 합쳐 3分類하여 A. "양재하기가 어렵다"는 傾向과 B. "귀찮다"는 傾向과 C. 뒤떨어 진다"는 理由 때문에 싫다는 傾向 等으로 범주화 하여 考察해 보았다. 「어려움 때문에」가 主婦 54%, 敎師 50%로 各各 半數以上의 比率을 차지했다. 「귀찮아서 싫다」는 사람이 主婦 14%, 敎師 11%, "뒤떨어지는 傾向" 때문에 洋裁를 싫어하는 比率이 主婦 29%, 敎師 34%로 나타났다. 어려워서 싫다는 傾向을 暫定的 否定意識, 귀찮다 뒤떨어진다는 傾向을 完全否定意識으로 간주한다면 約 40%가 完全否定意識의 範疇에 屬하고 暫定的 意識은 50% 以上인데 이는(後者) 肯定的 方向으로 轉換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 肯定的 意識을 檢討해 보기로 한다. 表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甚한 集中現象은 없었다. 主婦, 敎師 모두 가장 높은 比率을 차지하는 項目도 15~20%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가장 많이 해당된 項目은 "完成의 기쁨" "만드는 기쁨" "경제성" 等이었는데 이 세 項目이 차지하는 比率의 合計는 主婦 50%, 敎師 58%이다. 이러한 項目은 自己實現과 經

〈表 6〉 洋裁에 關한 肯定的 意識

問項 \ 主婦·敎師別	主婦	敎師
① 일하는 것이 즐겁다.	4.8(%)	1.3(%)
② 만드는 기쁨이 있다.	14.8	21.3
③ 만들기까지 구상하는 것이 즐겁다.	1.9	7.2
④ 만드는 동안 몰두할 수 있다.	5.7	9.7
⑤ 완성의 기쁨	19.9	19.1
⑥ 입는 즐거움	7.3	3.7
⑦ 남에게 보이는 즐거움	1.3	1.9
⑧ 경제적이다.	17.5	17.5
⑨ 여가선용을 겸한 취미	7.0	7.5
⑩ 곧 만들 수 있다.	0.6	0.3
⑪ 기술 발휘	0.7	0
⑫ 여성의 즐거움	2.4	0.9
⑬ 가정적이다.	3.6	1.9
⑭ 유행에 맞는 옷을 만들 수 있다.	0.3	0.3
⑮ 기성복에 없는 옷을 가질 수 있다.	0.3	0.3
⑯ 여러 벌의 옷을 가질 수 있다.	0.5	0.3
⑰ 품품하게 꿰맬 수 있다.	4.5	0.9
⑱ 개성적인 옷을 만들 수 있다.	1.2	2.5
⑲ 자기에게 꼭맞게 디자인된 옷을 만든다.	1.5	0.6
⑳ 자기 치수에 맞는 옷을 만들 수 있다.	0.9	0.3
㉑ 자기 취미에 맞는 색과 무늬를 택할 수 있다.	2.5	1.6
㉒ 기 타	0.9	0.9
合 計	100	100

濟性의 問題를 强調하는 項目이다. 表 6에 表示된 21個의 問項을 A. 經濟性 B. 自己實現 C. Fashion D. 技術 E. 時間 F. 女性으로서의 기쁨 G. 其他의(그림 3 참조) 6範疇로 整理하면 理解의 便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 表를 아래와 같이 범주화 하였다. A—⑧⑯ B—①②③④⑤ C—⑥⑦⑭⑮⑱ D—⑪⑰⑲⑳ E—⑨⑩ F—⑫⑬㉑ G—㉒ A—經濟性, B—自己實現, C—Fashion, D—技術 E—時間, F—女性의 기쁨, G—其他 等으로 범주화한 것을 主婦와 敎師를 比較해 보았더니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2〉 범주화한 긍정적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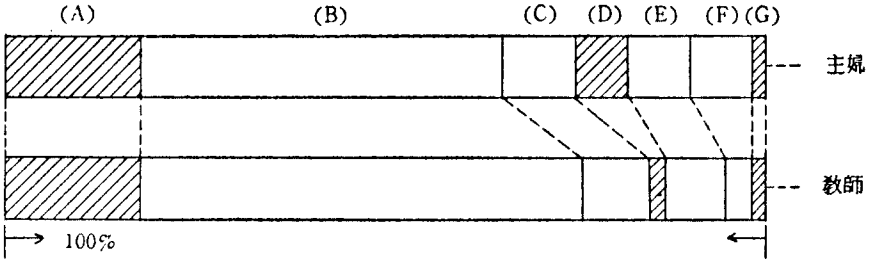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自己實現의 문제가 가장 큰 比率을 보이고 있고, 다음이 經濟性이다. 自己實現과 時間問題는 敎師側이 多少 높고 經濟性과 其他의 問題들은 모든 主婦側이 多小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家庭의 살림을 擔當한 主婦와 社會活動을 하는 敎師와의 相異한 特性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C. 旣成服에 對한 分析

消費者로서의 旣成服에 關한 意識과 購入傾向에 關한 두가지 側面에서 旣成服에 關한 問題를 分析해 보았다.

1) 消費者로서의 旣成에 關한 意識

旣成服의 購入傾向이 增加한다는 것은 그만큼 洋裁實行이 減少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와 같이 旣成服에 關한 態度는 洋裁實行의 問題와도 關連이 있으므로 이 問題도 살펴보고저 한다. 旣成服의 長點과 短點들을 10餘項目[3]씩을 제시하여 가장 타당성이 認定되는 項目에 하나만 答하도록 하였는데 그 結果는 表 7—1과 7—2와 같다.

長點으로 지적된 項目中 主婦側은 "손쉽게 求할 수 있다"든가 "곧 입을 수 있다"는 便宜性에 約 59%가 答했고 22%가 「값이 싼것」을 지적했다. 品質이 좋은 傾向을 指摘한 主婦

는 2%에 不過했다. 敎師側도 類似한 結果를 보이고 있는데 「購入便宜」에 約 69%가 應答하였고, 19%가 "값이 싼것"을 指摘했으며 品質이 좋다고 指摘한 敎師는 約 4%에 不過했다. 한편 "치수에 맞는 크기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가 主婦 6%, 敎師 2%이며 "알맞는 디자인을 택할 수 있다"에는 主婦 11%, 敎師 6%가 答하고 있다. (그림 3 참조)

〈表 7-1〉 既成服의 長點

長點에 關한 問項	主 婦	敎 師
① 손쉽게 구할 수 있다.	37.3%	37.5%
② 곧 입을 수 있다.	21.2	31.2
③ 치수에 맞는 크기를 마음대로 구할 수 있다.	5.4	1.9
④ 마음에 맞는 모양을 고를 수 있다.	8.3	3.7
⑤ 값이 싸다.	22.4	19.4
⑥ 바느질이 잘 되어 있다.	0.6	3.8
⑦ 마음에 맞는 색과 무늬를 고를 수 있다.	3.0	1.9
⑧ 천이 좋다.	1.2	0
⑨ 기 타	0.6	0.6
合 計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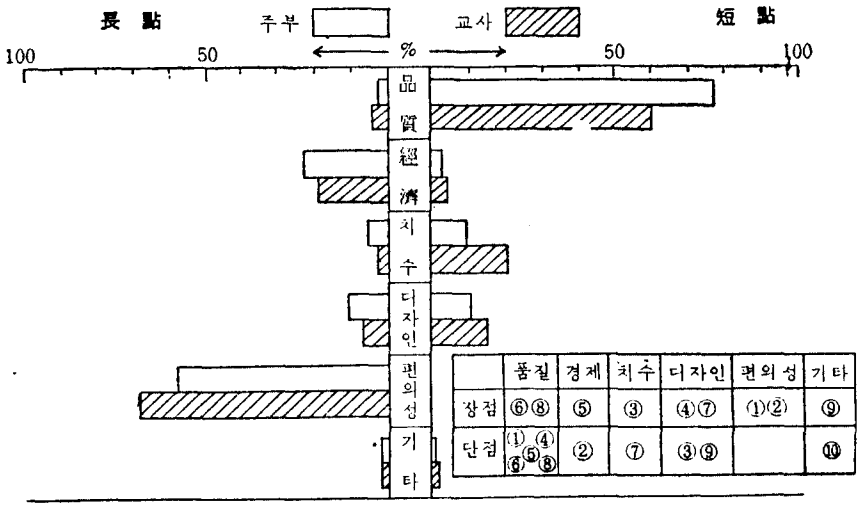
〈表 7-2〉 既成服의 短點

短點에 關한 問題	主 婦	敎 師
① 천이 좋지 않다.	4.2%	9.4%
② 값이 비싸다.	2.7	3.8
③ 마음에 맞는 색과 무늬가 없다.	6.9	5.6
④ 잘 줄어든다.	3.0	1.9
⑤ 빨면 모양이 망가진다.	10.7	19.4
⑥ 시접이 적다.	7.5	8.1
⑦ 몸에 맞는 옷이 없다.	8.9	20.6
⑧ 바느질이 튼튼하지 못하다.	51.6	21.3
⑨ 마음에 맞는 모양이 없다.	3.9	8.7
⑩ 기 타	0.6	1.2
合 計	100	100

다음에 短點에 關한 項目을 살펴보고자 한다. 既成服의 短點으로 指摘된 項目 가운데 가장 높은 比率을 차지한 것은 品質에 關한 項目이었다.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品質이 좋지 않다는 事項이 가장 많이 指摘되고 있다. 主婦는 約 77%였으며 敎師는 約 58%였다. 다음에 치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主婦 約 9%, 敎師 約 21%였다. Design이 좋지 않다는 것이 主婦 約 11%, 敎師 約 14%였다. 값이 비싸다는 問項에는 主婦, 敎師 모두 3% 내외뿐이었다. 品質面에서 短點으로 指摘된 內容은, 바느질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項目에 52%

가 答했고, 빨면 모양이 망가진다든가 시접이 적다든가 천이 좋지 않았다는 點等이었다. 上記한 長短點들을 相互比較分析해 보면 既成服은 購入便宜性의 利點과 값이 多少 싸다는 좋은 點은 있으나 反面 Design이나 치수나 特히 品質等은 期待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3〉 既成服의 長 短點 比較



	품질	경제	치수	디자인	편의성	기타
장점	⑥⑧	⑤	③	④⑦	①②	⑨
단점	①④⑤⑥⑧	②	⑦	③⑨		⑩

2) 既成販의 購入傾向

前記한 바와 같은 既成服에 關한 意識을 가지고 있는 主婦와 敎師는 實地로 어떠한 購入傾向을 보이고 있는가를 알아 보았다. 우선 既成服으로서 많이 活用하고 있는 옷의 種類를 알아보고 다음에 韓服의 傾向을 살펴 보았으며 然後에 洋裁實行의 實際와의 關連性을 알아 보았다. 表 8에 表示된 바와 같이 一般的으로 着用되는 코트, 원피스, 바지, 쉐타, 부라우스, 투피스, 스커트, 속치마 等의 種類를 提示하여 "주로 만들어 입는다" "주로 기성품을 사서 입는다" "주로 맞추어 입는다" "기타(없다)"의 4段階 중 該當되는 欄에 ○표를 하게 하였다. 이 項目에서는 配偶者의 狀況도 記錄하게 하였다(主婦는 配偶者에 答한 사람이 326名이었고 敎師는 98名이었다). 配偶者의 경우는 양복(상하), 바지, 남방, 티샤쓰, 와이샤쓰, 잠바, 코트等의 옷 種類를 提示해 주었다. (表 8—1, 8—2 참조)

위의 調査結果를 살펴보면 主婦의 경우 한복, 코오트, 원피스等은 66~70%가 맞춤이었고 韓服은 만들어 입는 층과 코트는 기성복을 사입는 층이 各各 20% 內外였다. 투피스는 맞춤이 많았다. 既成服을 많이 입는 種類로는 쉐터와 속치마로 각각 79%와 77%이다. 부라우스는 64%였으며 바지는 48%, 스커트는 32%였다. 집에서 만들어 입는 種類로는 한복, 속치마, 스커트等으로 16~22%였는데 쉐터는 이보다 比率이 떨어졌으며 이 외의 種類들은 극히 少數만이 만들어 입고 있는 傾向이었다. 各衣服種類를 綜合하여 全體平均比率로 볼때 主婦는 맞추어 입는 層이 40%를 點하였고, 그 다음이 40%로 既成服購入의 傾向으로 흐르

〈表 8-1〉 主婦의 既成服 購入傾向

問項別 / 主婦·教師別 / 問項에 제시된 옷의 種類	주로 만들어 입는다		주로 사 입는다 (기성복율)		주로 맞추어 입는다		없 다	
	主婦	教師	主婦	教師	主婦	教師	主婦	教師
한 복	22.1%	2.5%	3.9%	0.6%	70.7%	79.4%	3.3%	17.5%
코 오 트	1.8	0	21.8	2.5	71.0	97.5	5.4	0
원 피 스	7.2	1.9	17.3	6.9	66.3	90.6	9.2	0.6
바 지	6.8	0.6	48.7	28.7	38.8	68.8	5.7	1.9
스 웨 타	12.8	3.1	79.4	90.0	4.2	5.6	3.6	1.3
부 라 우 스	6.6	1.2	64.5	68.7	20.9	30.0	8.0	0
투 피 스	2.1	0.6	17.0	1.9	55.5	96.9	25.4	0.6
스 커 트	16.4	1.9	32.3	16.3	34.0	80.6	17.3	1.2
속 치 마	20.3	0.6	77.3	97.5	2.1	1.3	0.3	0.6
全 體 平 均	10.7	1.4	40.2	34.8	40.3	61.2	8.8	2.6

〈表 8-2〉 男便의 既成服 購入傾向

問項別 / 主婦·教師別 / 옷의 종류	주로 만들어 입는다		주로 사 입는다 (기성복율)		주로 맞추어 입는다		없 다	
	主婦	教師	主婦	教師	主婦	教師	主婦	教師
양 복(上·下)	1.1%	0.0%	6.0%	1.0%	88.1%	98.0%	4.8%	1.0%
바 지	3.4	0.0	19.3	15.3	74.5	83.7	2.8	1.0
남 방	2.8	1.0	69.9	67.4	23.9	27.5	3.4	4.1
티 샤 쯔	0.6	0.0	89.9	96.9	3.9	0.0	5.6	3.1
와 이 샤 쯔	0.6	0.0	80.7	72.5	15.0	24.5	3.7	3.0
잠 바	0.0	0.0	79.8	83.7	15.0	9.2	5.2	7.1
코 트	1.2	0.0	15.3	6.1	79.5	90.8	4.0	3.1
全 體 平 均	1.4	0.1	51.6	49.0	42.8	47.7	4.2	3.2

고 있다. 이렇게 볼 때 主婦는 맞춤과 既成服活用의 傾向이 거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表 8—1 참조)

·教師側은 이와 相當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주로 맞추어 입는 코트, 투피스가 各 97% 정도의 比率을 보였고 원피스, 스커트는 90%와 80%를 차지하고 있다. 既成服을 活用하는 傾向을 살펴보면 웨터와 속치마(Slipe)이 各各 90%, 98%이며 부라우스는 68%이다. 全體平均比率은 맞춤이 61%를 넘고 있으며 既成服活用은 35% 程度에 不過했다.

남편의 既成服購入의 傾向은 主婦의 그것과는 달랐다. 既成服을 活用하는 種類로는 남방, 티샤쓰, 와이샤쓰, 잠바等이었고 맞춤을 하는 옷은 양복상하, 바지, 코트等이었다. 만들어 입는 傾向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의 옷은 맞춤과 既成服購入의 比率이 比等하게나타났으며 이러한 傾向은 主婦와 教師 사이에 差異가 別로 없었다. 結論的으로 外出服이나 正裝을 위해 着用되는 衣服類는 맞춤이 많고 平常服이나 正裝이 아닌 簡便한 차림에 着用되는 衣服類는 既成服이 活用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表 8—2 참조)

D. 流行에 대한 關心度

流行이란 다른 어떤 社會現象보다도 服裝에 있어 가장 顯著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옷을 만들어 입든, 또는 主로 購入에 依存하든 또는 맞추어 입든간에 衣生活에 關한 意識은 流行에도 反映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流行에 對한 關心의 角度에서 衣生活에 關한 意識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意識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기서는 진열장의 유행복이나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의 옷에 對한 關心度와 外出服에 여러가지 옷을 바꾸어 입고 싶어하는 욕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많다" "조금 있다" "거이 없다" "전혀 없다"의 4가지 答枝를 提示하여 解答하게 하였다.

먼저 진열장의 流行服에 對한 關心度를 보면 主婦의 58%가 많이 또는 조금의 關心을 表示했고 敎師의 84%가 關心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陣列藏에의 關心은 結局은 衣服의 購買計劃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美國의 한 調査에 依하면 衣服購買決定에 미치는 外部的인 影響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約 28.2%는 所謂 window shopping에서 購買計劃을 세웠다고 한다[4]. 거리를 것고 있는 사람의 옷에 注意를 기울이는 程度는 主婦 63%, 敎師 84%였다. 외출시에 여러가지 옷을 바꾸어 입고 가고 싶지만 적당한 옷이 없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項目에는 81%가 가끔 또는 흔히 있다고 답하고 있다. 全體的으로 보아 主婦의 約 63%가 流行에 對해 關心을 나타냈으며 敎師의 83%가 流行에 對한 關心을 보이고 있어 敎師가 主婦보다 約 20% 높은 關心度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職業上의 必要性에서 起因된 것으로 解釋된다. (表 9—1, 9—2, 9—3 참조)

〈表 9—1〉 진열장의 유행복에 주의를 기울이는 程度

應答項目	많이 기울인다.	조금 기울인다.	별로 기울이지 않는다.	전혀 관심이 없다.	合 計
主 婦	22.4	36.1	33.1	8.4	100%
敎 師	36.9	46.9	16.2	0.0	100

〈表 9—2〉 걷고 있는 사람의 옷에 주의를 기울이는 程度

應答項目	많이 기울인다.	조금 기울인다.	별로 기울이지 않는다.	전혀 관심이 없다.	合 計
主 婦	21.5	42.4	28.1	8.0	100%
敎 師	29.4	54.4	13.1	3.1	100

〈表 9—3〉 외출시 적당한 옷이 없어 유감으로 생각하는 程度

應答項目	흔히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合 計
主 婦	20.9	46.0	26.9	6.2	100%
敎 師	25.6	55.6	16.3	2.5	100

Ⅳ. 結　　論

이제까지 都市主婦와 女敎師의 洋裁實行의 實際와 그 意識을 旣成服과 關聯을 지어 알아보았는데 앞으로의 家庭洋裁의 普及의 可能性이라는 側面에서 要約해 보면 大體로 다음과 같다.

1. 家庭洋裁實行에 있어 主婦나 敎師 모두 그 趣味, 嗜好性, 또는 家庭洋裁의 實踐狀態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의 家庭洋裁의 實行可能性은 充分히 發見된 것으로 判斷된다.

2. 洋裁에 關한 意識에 있어서는 "어렵다"는 傾向을 보이는 意識을 완화 또는 解消시켜 줄 수 있다면, 家庭洋裁를 더욱 普及할 수 있는 契機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3. 기성복에 關한 分析結果는 첫째, 品質이 改善되어야겠고, 다음으로 치수가 規格化되어야 하겠고, Design도 現代感覺을 살려 多樣化되어야겠다.

4. 全體的으로는 主婦와 敎師의 差異는 별로 뚜렷한 것이 없었는데 多少의 差異를 보인 것은 家庭洋裁의 實行比率과 流行에 對한 關心度의 差異였다.

以上의 整理로 미루어 旣成服活用의 範圍는 平常服 簡便服에 限定되어 있으며, 家庭製作은 거의 없으므로 家庭洋裁의 實行性은 現在로서 極히 미약한 實情이지만 主婦나 敎師의 意識 속에는 싫어하고 기피하는 傾向보다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意識이 作用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中高等學校를 비롯한 大學家政科의 洋裁指導過程 및 方法이 앞으로의 硏究課題로서 再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註〕

1) 이러한 種類의 硏究는 家政學과 社會學이 交叉되는 領域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美國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두 分野의 學者가 協同하여 調査硏究하는 일이 적지 않다. 例를 들면 家政學의 敎授와 社會學의 敎授가 共同으로 「옷 購買決定에 關한 社會的 風土」를 調査硏究한 일도 있다. (Gregory P. Stone, William H. Form, and Hazel B. Strahan, "The Social Climate of Decision in shopping for Clothes," Journal of Home Economics, 46(2), 1954, pp. 86~88 參照) 韓國도 이러한 風土가 造成되기를 바란다

2) 職業女性인 敎師와 主婦의 衣生活調査를 意圖하는 이 標本에서는 年齡, 敎育程度, 男便의 職業, 生活程度(大槪는 中이고 下는 얼마 되지 않았다)에 따라 그다지 差異點이 나타나지 않았다.

3) 美國 主婦들의 旣成服에 關한 調査에서는 品質이 不良하고 바느질, 단추달기, 단추구멍, 솔기等이 튼튼하지 못하여 솔기가 터지거나 올실이 잘 풀리고 천은 變色되기 쉽고 다림질하기에 곤란성이 있었으며 값이 不合理하다는 點이 指摘되었다. Evelyn Blake, Oris Glisson and Mildret T. Tate, "A Study of the Prerchool Child's Clothing in 100 Families of Radford, Virginia," Journal of Home Economics, 45 (3), 1953, pp. 179~186)

4) Gregory P. Stone, William H. Form, and Hayel B. Straham, op. cit. pp. 86~88.

參 考 文 獻

1) Evelyn Blak, Oris Glisson and Mildred T. Tate, "A study of the Preschool Child's clothing in 100 families of Radford, Virginia," J. of Home Ec., 45(3), pp. 179~186, 1953.

2) Sister Marie Lawrence Mayer, "Clothing Inventories of 41 Teen-Age girl's," J. of Home Ec., 49(2), p. 124, 1957.

3) Gregory P. Stone, William H. Form, and Hazel B. Strahan, "The Social Climate of Decision in Shopping for Clothes," J. of Home Ec., 46(2), pp. 86~88, 1954.

4) Jessie A. Warden, "Some desires or Goals for Clothing of College Women," J. of Home Ec., 49, p. 795, 1957.

5) 堀志津："スリップについての調査" 繊維製品消費科學, 13(11), pp. 491~497, 1972.

6) 小嶋外弘, 米井美弥子, 宮澤正安："家庭洋裁に 關する 消費者の 意識調査", 상게서, 13(9), pp. 376~383, 1972.

7) Mary Ellen Roach & Joanne Bulolz Eicher,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1965.